

이제 요한복음 제5장으로 넘어가자.

요한복음 제2장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분은 거기서 니고데모를 만나셨다. 그분은 그분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하기까지 여전히 그 지역에 머무르시면서, 유대 지역에 있는 요단강 가에서 사역을 하셨다. 그러다가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여행 얘기는 요한복음 제4장에 나오는데, 그 노중에서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 생명의 물을 나눠주셨다.

이제 제5장에서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절기에 참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몇몇 사람들은 그 때가 오순절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나, 물론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다. 본문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이 일 후에(5:1).*

이는 그분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 사역을 시작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는 뜻이다.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가 있으므로(5:1).*

이 절기가 어느 절기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 시장 곁에 (5:1,2).*

여기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약간 설명한다. 그의 얘기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양(羊) 시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히브리 말로 베테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5:2).*

베테스다는 ‘공홀의 집’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연못은 공홀의 집이라고 불렸다. 이 연못에는 행각 다섯이 있는데 양문 곁에 있었다. 그 위치는 예루살렘 도성 북동쪽 어디쯤 되었다.

그[거기 있던 문들을 말함]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5:3,4).

이는 흥미 있는 현상이었다. 그 못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단 물이 동하면 그 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엄청난 각축전을 벌이곤 했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이 동할 때마다 얼마나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겠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 즉 눈 먼 자와 저는 자들이 그 물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는지 말이다.

나는 신앙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 있다고 믿는다. 성서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부여하셨다. 그런데 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믿음을 촉발시키는 것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안다. 베드로가 길을 갈 때에 사람들이 병자들을 길옆이나 길바닥에다 눕어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경우 그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어서 그 결과로 병자들이 치료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것은 신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나를 덮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촉발되는 것이다.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들을 덮을 때 그들은 치유를 받았던 것이다.

여러분은 군중 속을 뚫고 예수께로 다가왔던 한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그 때 예수님은 죽음에 처해 있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시는 길이였다. 그녀는 사람들을 헤집고 달려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예수님은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여, 어인 말씀이십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서로 밀치고 떠밀고 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고 물으시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게서 능력이 나아간 것이 감지되었느니라. 그러자 한 여인이 떨며 나아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지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기가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 여인은 자기 믿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하나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여인이 많은 말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자기 경험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웃는 순간, 내 눈이 그분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그분이 어떤 특정한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 때 바로 내 믿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게 된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들 위에 놓으니 그들이 나음을 입었더라. 나는 이것 역시 믿음의 역사(役事)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손수건을 가져다가 내 위에 놓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실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모두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접촉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런 말을 한다: 예,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피동적인 신앙이다. 그저 막연하게 믿는 신앙이다. 그에 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신앙이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여 고침을 받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장로들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위해 기도를 드릴 때, 바로 그 때 믿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접촉점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 일이 신앙을 촉발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만든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고로 연못의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물에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되었던 것이다. 믿음이 촉발되자 치료가 임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거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며 물이 동할 때는 먼저 들어가고자 쟁투를 벌이곤 했다.

*거기 삼십팔 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5:5-7).*

흥미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께서 묻는 말에는 하나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께 대답한 내용을 보면 자기가 치유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뿐이다. 이는 자신의 문제점을 반복해서 설명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했어야 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원하고 말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제가 원하고

말고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는 대신 그는 자기가 왜 여태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리키시면서 네가 놓임을 받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아 예, 제게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가 해방 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연약한 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가 해방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면 될 일을 가지고 말이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왜 고침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을 늘어놓았다.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누군가는 저보다 먼저 연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라.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다가, 동하는 순간에 그가 얼마나 좋아했겠는가. 그런데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순간 다른 사람이 그보다 먼저 그 물에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 물이 다시 동하기를 무작정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었다.

여러분이 지금 왜 여러분의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은 주님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앓은뱅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였다.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그 다음 사항은 바로 이것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5:8).*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예수님께 계속 설명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아직 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절름발이입니다. 제가 수 년 전에 어떤 여자와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그녀는 성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 결과로써 제가 오늘날 이렇게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풍 병에 걸린 사람의 경우를 기억하는가? 그는 지붕을 통해 예수님 앞으로 내려졌다. 그도 여기 나오는 사람과 동일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다. 그의 질병 역시 죄와 직접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그 역시 예수님의 명령에 도전하며 자기의

무능력에 대해, 왜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재차 예수님께 설명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그가 시행하기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탄원을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명하게도 이 절름발이는 한 낮선 이의 그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한 낮선 이가 다가오더니, 네가 낮고자 하느냐? 라고 묻는다. 글썄요, 아시다시피 제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쓸 때마다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 낮선 이는 여러분에게 명령한다. 일어나서 걸어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었다. 어쨌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나, 그 믿음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들어 있어서 그 사람은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기 시작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시행 불가능한 명령에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작정하는 순간, 그 명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약점을 자꾸 반복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이다. 왜 우리가 그런 일을 시행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승리자가 되라. 네 생애에 있는 악을 극복하라. 그렇지만 주님, 저는 지난 38년 동안 병어리로 지내왔는데요. 여러분은 그 명령에 순종하거나 순종하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은 채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한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절대로 안 되.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은 그 명령을 시행하겠다는 마음의 결의를 다지기보다는, 이렇듯 불가능하다는 말만을 되풀이한다.

주님은 힘을 내라 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분과 쟁론하지 말라. 힘을 내도록 하라. 승리자가 되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작정하는 순간,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주실 것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5:9)*

이제 요한은 문제 자체를 다루기 시작한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5:9-11).

그 사람이 내게 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고침 받은 녀석은 절름발이로서 38세쯤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리 없다. 사람들이 그에게 가끔 동전 한두 잎을 던져준 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38년 동안 아팠다가 다시 걷는다는 사실은 그들은 흥분시키거나 자극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을 자극한 것은 오늘이 안식일인데 그가 자리를 들고 갔다는 사실이다. 그 점에 대해서 그들 모두는 흥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은 예수께서 없어야 한다는 결의의 시작이었다. 이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결코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과정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그분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사실은 말이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명하신 분, 그분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5:12-14).

베드로는 체험을 하고도 떠나간 사람의 마지막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진 사실에 대해서 말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온전하게 되었다. 그는 죄의 결과로 그 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네 길을 가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보다 더 악한 것이 너에게 임할까 하노라.

(5:15,16).

그들을 질색하게 만드는 일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 일이 안식일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5:17).

나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너희가 기쁘지 아니하냐? 주께서 모든 안식일을 빼앗아가 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우리는 고약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안 그러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신다(시 121:4). 이것은 좋은 일이다. 나의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일하신다. 그분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5:18).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으로 격하시키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도, 기타 많은 무리들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만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여기서 주장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주장을 하나님과의 동등성에 대한 주장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다.

(5:19)

*그리고 이것은 진실로, 진실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진리에 대한 강조이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바와 같다: 주의해서 듣고 올바르게 알도록 하라. 이것은 일종의 주의환기이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중요하며 그것은 진실이며 따라서 너희는 그것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이다.*

(5:19).

그분은 나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그대로 행한다.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시행하러 여기에 왔다. 나는 그 아버지의 일을 하러 여기에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확인하셨다. 나는 나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므로 그분의 삶과 사역은 그 아버지께 의하여 통제되었다. 그분이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것은 위대한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그분은 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役事)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으며, 그런 일을 보자마자 그분도 그 일을 따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긍정하셨다.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그 일을 나 스스로 하노라. 이 얘기는 전체적인 주제에 흥미로운 빛을 던진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게 된다. 그것이 신체적인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또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일은 신체적인 분야였다. 그는 38년 동안 불구의 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이제 너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5:20)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나 나는 그것을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이다.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다.

(5:20)

이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너희에게 이보다 훨씬 큰 일들을 보이실 것이다.

(5:21,22)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너희는 이보다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살리시니 아들도 살릴 것이다. 사실,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 앞으로 죽은 지 나흘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얘기도 나오게 될 것이다.

(5:23)

다시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헐뜯거나 거기에 도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문시하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셨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을 존경하기를 원하신다.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과 동일한 공경이 예수께도 드려지기를 원하신다.

(5:23)



스스로 아버지를 예배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들어 보라. 만일 너희가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5:24)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또 그분을 믿어라.

(5:25)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딸에게 다가가셔서 그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죽어 있었으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다. 그분은 나흘 동안 죽어 있던 나사로의 무덤으로 다가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고 소리치셨다. 죽은 자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비틀거리며 일어나왔다. 예수께서는 저를 풀어주어라 고 말씀하셨다. 저를 싸고 있던 수의를 풀고 저로 하여금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라. 이렇듯 죽은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는 살아났던 것이다.

(5:26)

몇 장 더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 나는 나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내 목숨을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요 10:18). 이것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길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다시 한 번 선언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어 내 안에 있게 하셨다. 나는 그 생명을 버릴 수도 있으며 그것을 다시 취할 수도 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죽은 자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신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그 아들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5:27)

인자는 메시아에 대한 명칭이다. 여러분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명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일할 권세를 주셨다. 다음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5:28,29)

우리가 누가복음 제16장을 통독하는 동안 매일 호화롭게 살아가는 부자에 대한 얘기와 나사로라 이름하는 가난한 사람 얘기를 읽었다. 사람들이 매일 나사로를 그 부자집 앞에다 데려다 놓으면 나사로는 부자집의 밥상에서 나오는 찌꺼기로 연명을 하곤 했다. 그는 현대로 뒤덮여 있던 가련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었다. 가난한 자는 천사들에게 인도되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부자는 죽어 지옥에 떨어졌다. 그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바라보게 되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소리쳐 말하였다. 아버지 아브라함여, 내게 공활을 베푸소서.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그의 손가락을 물에 담갔다가 내 혀에 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이 열기 가운데서 죽겠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그리로 가지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도 이리로 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 너는 살아 생전에 좋은 것들을 누렸으나 나사로는 험한 일들을 당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고통을 받으나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구나.

부자가 말하였다. 만일 나사로가 이리로 올 수 없다면 그를 세상으로 돌려보내어 나의 형제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무시무시한 장소에 오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믿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사람이 죽고 나면 히브리말로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것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구렁이 끼여 있다는 것이다. 한 쪽은 다른 한 쪽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 아래쪽에서 하늘 쪽을 인식할 수는 있게 되어 있다.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볼 수 있었으니 말이다. 나사로가 부자를 알아보았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고 아브라함에게 말도 걸었다. 인식할 수 있고 의사를 소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령을 건널 수는 없다. 부자는 두고 온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알 수가 있었다.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의 몸이 음부에 떨어져 있지만 그는 어떤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물로 혀를 서늘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 말했다. 불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그는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장차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의식하고 있었다. 그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었다.

한 쪽은 고통을 받는 장소요 다른 쪽은 위로를 받는 장소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것이 그에게 있어 의로 간주되었다. 그는 장차 믿게 될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한쪽 편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지당하였다. 사람들은 죽어 스올의 한 쪽으로 즉 음부로 들어가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구역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씨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창 22:18). 이는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나오게 될 것을 언급하는 말씀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이것은 그에게 있어 의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거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었다. 이사야서 61장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묶인 자들을 풀어 주고 갇힌 자들의 옥문을 열어주고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킨다(사 61:1). 여기 있는 그들은 스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그분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은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는 자들이었음이 틀림없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구약의 동물 희생 제사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다. 그런 제사로 할 수 있는 것이란 죄를 덮거나 하나님의 어린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십자가를 가리키는 게 고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 그 동물 희생 제사는 죄를 없이 할 수는 없고 다만 죄를 덮을 수 있을 뿐이다. 믿음 안에서 드러지면 그런 제사가 죄를 덮을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이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흠모하고 거기에 집착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보다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없으면 완전한 상태가 될 수 없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일어난 현상 때문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설교를 한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이 사악한 손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그분은 죽음에 갇혀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행 2:23,24).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분께 대해 기록하던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시 16:10). 베드로는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그분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 거룩한 이로 하여금 썩음을 보지 않게 하셨다 라고 했다. 이 동일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다(행 2:27,32).

바울 역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올라가셨던 분은 바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분이시다. 그분은 올라오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끌어 올리셨다(엡 4:8,9). 그분은 갇힌 자들에게 옥문을 열어주셨다. 그분은 사망의 포로가 된 자들을 해방시키셨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분이 부활하신 후 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며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베드로는 그분이 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예수께서 지옥으로 가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거기서 구속이 실제적으로 이뤄졌다고 가르치는 정신 나간 이단 교사들이 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니다. 십자가 하나면 족하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부흥회였을 것이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나는 마침내 해냈다. 내가 값을 치렀다. 너희의 죄는 대속 되었다.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부터 데리고 나가겠다. 실제로, 그분은 올라오실 때 그들을 포로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난 후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다: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부자와 함께 있던 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이 사망과 죄를 이기셨음을 선언하셨을 것이다. 그리고는,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두 부활 사이에는 중간 기간이 있을 것이니,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타난 바와 같다. 첫 번째 부활 다음에는 두 번째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은 1,000년이 될 것이다.

나는 첫 번째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자들의 첫 열매이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부활은 계속 될 것인데 총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1,000년 후에는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에는 그 두 가지 부활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어날 자들의 두 가지 운명에 대한 예언이다. 다니엘은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땅 속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 중 많은 이들이 깨어나게 될 것인데, 더러는 영생의 부활로 또 더러는 영구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부활로 깨어나게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많은 자들을 의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단 12:2,3). 두 번째 부활을 통해 일어나게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총만한 수의 구원받은 이들이 첫 번째 부활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활에서는, 구세주를 거부하다가 저주를 받게 된 사람들의 총만한 숫자가 일어나 큰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책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책에 적힌 내용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생명책 속에서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 이들은 누구나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음부가 아니라 지옥이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징조를 구하였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징조를 구하느니라. 그런 세대에게는 선지자 요나의 징조 외에는 다른 아무런 징조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삼일 삼야를 고래 뱃속에서 자낸 것과 같이 인자도 삼일 삼야를 땅속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마 12:39,40). 그분은 스올로 내려가셨으나,

부활하셔서 올라오실 때 사로잡힌 자들이 사로잡힘에서 이끌어내어 오셨다. 그것은 처음이며 시작이었다. 부활의 첫 열매였다.

나는 믿는다: 내가 이제 이 몸으로부터 떠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했다. 이 몸에 갇혀 있는 우리는 그 몸의 한계에서 벗어나기를 진지하게 바라면서 종종 신음을 한다. 내가 벗고자 하거나 몸이 없는 영이 되고자 함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몸으로 덧입혀지고자 함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 몸 안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도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몸으로부터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노라(고후 5:1-8). 그러므로 그는 몸이 없는 어떤 상태를 원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자신에게 갈등이 있다고 고백했다. 나에게서 여기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 나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끼여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얼마간 더 필요하다는 점도 알고 있다(빌 1:23,24). 나는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 나는 이곳으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는 느낌도 든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이곳에 잠시 더 머물게 하시는 것이다. 내 일이 아주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는 자기가 죽었었는지 살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의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그가 삼층천으로 불려 올라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는 그가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죄가 될 것이다(고후 12:2-4).

그러므로 첫 번째의 부활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그 부활은 마지막 순교자가 대 환란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부활이 끝나게 된다. 종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지상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후 천년만에 두 번째 부활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 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저주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부활이라기보다는 큰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마지막 지옥 불의 심판은 기다리는 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5:30)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와 연계시키셨다. 그분의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분의 심판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심판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 두 분은 너무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셔서 마치 한 분처럼 일을 하신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5:31)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말마다 확증되어야 한다. 그들은 어떤 이가 자신에 대해서 증거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뒷받침하지 않는 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증거하고 계시는데,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5:32)

세례 요한은 뭐라고 증거 하였는가?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3장에서 그런 말을 읽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인자에 대해 증거 하는 이가 또 한 사람 있는 것이다.

(5:33)

요한은 말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다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서 참된 증거를 하였다. 이 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5:34-36)

여기 절름발이가 한 사람 있다. 그는 38년 동안이나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예루살렘 주변을 걸어다니게 되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 하는 자가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 한다.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께로 와서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요 3:2).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면, 빌립이 예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요청한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거늘 너희는 나를 몰라보느냐,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어라(요 14:8-11).

베드로가 오순절 날 예수를 소개하며 설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사렛 예수는 그분께서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증명되신 분이시다(행 2:22). 여기서도 그분은 자신의 일을 자기 자신에 대한 증인으로 삼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그 일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증거 한단다.

(5:37)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인자가 세례 받으셨을 때를 기억하느냐. 인자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형상으로 강림하여 인자 위에 앉아 있었으며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했다. 아버지가 증거 하신 것이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아들의 순종을 보셨기 때문이다. 세례 시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나는 그를 대단히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여기에 요한의 증거가 있고, 그분의 사역으로부터 나온 증거가 있고, 아버지의 증거가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5:38)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너희 속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불러내신 증인은 성경 자체였다.

(5:39)

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너희는 성서를 살피는구나. 너희는 성서를 파고드는구나. 너희는 성서를 연구하는구나. 너희는 성서 연구를 부지런히 하는구나. 너희는 성경을 살피는구나.

(5:39,40)

예수께서는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분은 제자들의 눈을 열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더하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오경과 선지서 그리고 시편 중에서 그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모든 구절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펴보았듯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300가지가 넘는 조건들이 있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메시아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성취해야 할 조건들 말이다. 이 300가지의 조건들을 예수님은 다 완성하셨다. 그 누구도 그런 일을 우연히 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중 16가지를 우연히 성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연적 요소가 300가지 이상이 된다면, 여러분은 우연적 요소를 너무 과신한 것이다. 우리의 두뇌로는 그런 일을 상상할 수가 없다. 우리가 16가지도 상상할 수 없는데, 하물며 300가지라니 말이다.

우주에는 2만 개의 은하계가 있으며 2조 개의 성운에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있다. 그 별들 중의 하나를 어떤 사람이 우연히 잡게 될 확률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나는 우주를 상상할 수조차 없다. 나는 은하계의 성운을 상상할 수가 없다. 천억 개나 되는 별들을 상상할 수 있는가? 잠깐 생각해 보라. 나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 그 별들은 나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결단코 그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생명을 얻고자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분께로 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5:41,42)

이것은 강력한 고발이다. 나는 너희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안다. 너희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

(5:43)

오늘날 여러분이 유대 랍비에게 말을 걸 경우, 그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들을 댈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다.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분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모세의 예언이 있기 때문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 일어날 것이며, 너희는 그에게 주목하게 될 것이다(신 18:15). 모세는 사람이었으며 선지자였으니, 메시아도 사람일 것이다. 그들은 모세가 전한 그런 메시지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추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시편 2편을 읽지 않은 모양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시 2:7). 이런 구절도 있다: 그분이 아들에게 말씀하셨다(히 1:8). 우리에게 한 아들이 낳으신 바 되었으며 한 아들이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사 9: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부인했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만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온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온다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속일 것이며 그들은 그를 메시아로 환영할 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교인들 중에, 메시아가 곧 오시리라고 진지하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에게 메시아가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메시아를 어떻게 식별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

9장에 비취 볼 때 매우 흥미로운 얘기다. 거기에 보면 백성들의 입금이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언약에는 물론 그들의 성전 재건이 포함될 것이며, 그는 그들의 메시아로 추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7년 기간의 중간에 그 언약은 깨어지고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5:44)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영광을 구하는 것을 보아왔다. 잔치자리에서 사람들은 혼시를 한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잠시 후에 자기들에게 말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런 저런 사람들을 존경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구나. 그러나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구나.

바울은 만일 내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 말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칭찬을 바란다면, 어떻게 믿는 자가 되겠느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에 대해서는 유독 관심이 없구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5:45)

내가 너희를 고소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미 법을 어겼다. 다시 제3장으로 돌아가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던 장면을 살펴본다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 하려고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믿는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요 3:17,18). 율법이 그(믿지 않는 자)를 정죄하고 모세가 그를 정죄했다.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은 그의 죄와 잘못을 보여주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삶의 표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만들고자 함이다.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아낸다(갈 3:24).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 파산을 깨닫도록 만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죄니 곧 빛이 세상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다(요 3:18,19). 그들은 자기들의 사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하여 빛에게로 다가오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아버지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거기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도고를 하고 계시다. 아버지여, 저 사람의 몫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들은 나의 사람들이입니다. 저들은 나를 믿고 신뢰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것을 내게로 돌리소서. 내가 죽을 때 저 사람의 몫도 담당했나이다. 내가 저들의 죄도 지고 갔나이다.

바울은 죄의 용서를 받은 다윗을 인용하여 말한 적이 있다.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의 얘기다. 다윗이 죄를 짓자 그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었다. 나단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러나 당신은 죽지는 않을 것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으며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나이다 라고 말했다(삼하 12:1-13). 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허물을 묻지 않으시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허물을 돌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바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인쳐 주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에게서는 전혀 정죄함이 없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썼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도다(롬 8:1). 그런 연유로 해서 나는 매일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오, 하나님께서 허물을 묻지 않으시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가지 않으려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모세라. 그는 바로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자로다.

(5:46)

너희는 참으로 모세를 믿지 않는구나.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나를 믿으려고도 했을 것이다.

(5:46)

예수께서 성경을 인용하실 때마다 다른 책이 아니라 바로 신명기를 인용하시곤 했는데, 이는 참으로 흥미로운 사항이다. 모세가 쓴 신명기에는 예수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다.

(5:47)

이것은 그들을 정면으로 고소하는 말에 해당했다. 이것은 사실상 첫 번째의 대결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대결이 있을 것이다. 점점 더 심각한 대결이 있게 될 것이다. 보다 더 직접적인 대결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와 유대인 사이의 이런 대결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 대결이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이 기술되어 있다.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나서 그들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할 수는 없다 라고 선언한다.

아버지여,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음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또한 안전한 곳, 든든한 곳, 소망이 있는 곳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안락한 곳이 있나이다. 오 주여, 우리의 죄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고 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당신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의를 우리에게로 이전(移轉)시켜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쳐 그분을 믿고 신뢰하였음이니이다. 주여, 비옵나니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축복하십시오. 그곳은 어두움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니이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빛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이끌려 와서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